

한국-덴마크, 재생에너지 컨퍼런스 개최

한국과 덴마크가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9월7일 코펜하겐에서 <한국-덴마크 에너지 컨퍼런스>를 개최한다.

외교통상부에 따르면, 한국과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의 기획으로 컨퍼런스를 추진했다.

재생에너지 컨퍼런스에는 코니 헤데가르드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,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, 양국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또 세계 풍력발전 분야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 등 재생에너지 선진 기업들이 다수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외교부는 한국의 에너지관리공단과 덴마크 에너지청(DEA)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분야에 관한 양해각서(MOU)도 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.

<화학저널 2009/09/07>